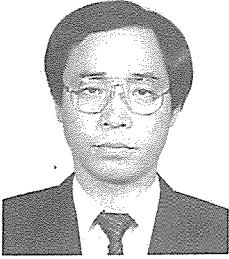


대한치주과학회 제 33 차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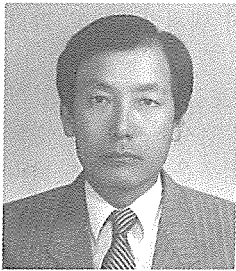
< 회장 : 김종관 >

지난달 30일 오후 4시 대한치주과학회(회장 김종관)는 제 33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전북 이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에서 개최하여, 신년도 예산안 4천 8백 30여만원을 통과시켰다.

이날 대한치주과학회 정기대의원 총회는 신년도 예산안 승인, 전문의제도의 시행에 관한 세칙 준비, 치주보험수가 현실화 방안 모색, 지부운영 개선책 강구, 편집위원회 구성 등이 논의 되었으며 94년도 사업계획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또한 이번 정기대의원 총회는 지방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는 지부활성화 및 지역 치주과학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과보철학회 춘계학술대회 성료



<회장 김광남>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김광남)는 지난 5월 21일(토) 94년도 춘계학술대회를 55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인터콘티넨탈 호텔 Grand Celadon 볼룸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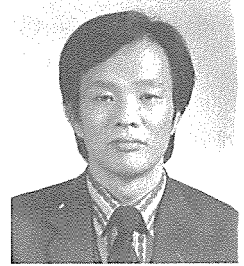
이날 있던 학술대회에서는 임상증례, 심포지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김지영(중앙 길병원)씨의 "Silicoater를 이용한 심미보철"를 시작으로 22편의 임상증례와, 전남대학교 정현주 교수의 "치주 보철시의 치주학적 고려 사항"을 시작으로 한 4편의 심포지움이 발표되었다.

한편 추계학술대회는 1994년 12월 3일(토)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신규임원 합동모임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의웅)는 지난 4월 20일 이상철 고문, 남일우 명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대 알렌관에서 신규임원 합동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학회는 우리나라 구강악안면외과학을 국제화하고 전문의제도 실시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기로 다짐했으며, '94년도 학회주요사업목표로 1)구강암연구소 설립 추진 및 역학조사, 2)전문의제도 실시에 대한 준비, 3)"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서 제작, 4)학술지의 국제화, 5)국제학회와 교류증대, 6)대국민, 대회원 홍보 강화 등을 기초로 한 각 부의 사업계획을 제출받고 있다.



<회장 이의웅>

임원명단 :

회장 : 이의웅, 부회장 : 김수경 · 정호균, 감사 : 심광섭 · 김여갑, 총무이사 : 박형식, 학술이사 : 김경욱, 편집이사 : 이건주, 국제이사 : 조병욱, 재무이사 : 차인호, 홍보이사 : 김명래, 보험이사 : 김형곤, 자재이사 : 이동근, 섭외이사 : 신효근, 기획이사 : 김명진 · 이상한 · 김태규 · 여환호 · 엄인웅 · 김용각 · 박광호 · 장세홍 · 정 훈 · 김유진 · 정필훈 · 김민형 · 김성문 · 유재하 · 임창준 · 정인교 · 류선열 · 정인원 · 김진수, 전문의위원회 위원장 : 남일우, 교과과정위원회 위원장 : 정호균, 의료사고대책위원회 위원장 : 김수경

*문의 : 학회사무실

(연세치대 구강악안면외과 : 361-7840, FAX 364-0992)

대한치재협회 제9회 정기총회 성료

지난 5월 21일 대한치재협회는 제 9 회 정기총회를 평창동 소재의 라마다올림피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고 94년도 예산안을 전년대비 60% 증액한 1억 5천여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태섭 보사정책과장, 조동환 기공사협회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훈 총무이사의 전체 회원 274명중 154명의 성원보고로 개최된 이날 정중에서 吳東鉉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 약사법에 의거 의료용구 시설기준 및 치과전용 의약품 판매 등 불합리한 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회원들의 불이익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치과계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일수록 회원들이 협회를 구심체로 단합한다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일할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화합을 강조했다.

김태섭 보사정책과장은 치사를 통해 「UR타결로 개방화의 물결이 치과계에도 미칠것을 감안 할 때 치과기자재의 국산화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치재협회원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으며, 한편 조동환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치과계의 선진화는 특정 단체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관련 유관단체간의 상호협조만이 낙후된 치과계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상폐수여와 휴회에 이은 본회는 93년 회무보고 및 결산, 감사보고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새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에서 10년 넘게

회비의 증액없이 회무를 이끌어온 집행부를 인정, 회비인상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켰으며 회원의 권익신장, 관련법 제도개선 기관지의 활성화 등 협회의 주요역점 추진사업을 위해 1억 5천여만원의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일반의안으로 회관건립추진안이 상정되어 여러회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세부사항을 집행부에 위임하며 통과시켰다.

한편 10월 치협전시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현재 치협과 아무런 협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안임」을 밝혔으며 또한 경남지부에서 치과기자재 공동구매와 관련 경남치과의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밝히고, 비회원사에 대한 불공정한 상거래를 협회차원의 대응을 건의하였으나 참고답변에 나선 이용익 자재이사는 「모든 회원들이 느끼고 공감하는 문제이지만 협회차원에 대응이 가결된다면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의거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현재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감시권이 활성화되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며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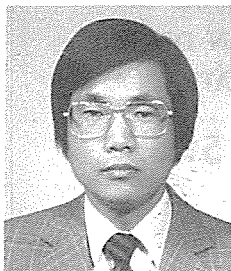
회원상호간의 정보교류의 목적으로 전시회도 함께 병행하여 진행된 이번 제 9 회 정중은 예년과는 달리 회원상호간에 화합과 결속력이 돋보인 총회라는 후문이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논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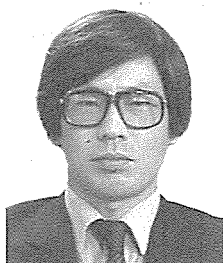
- 제 15집 제 1호 발간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교에서 경희치대논문집 제 15 집 제 1 호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논문집에는 나영민, 민병순, 최호영, 박상진, 최기운 교수의 'Glass-ionomer cemet 이장재의 세포독성에 관한 연구'를 비롯한 10편의 연구논문이 160여 페이지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승진 발령



<홍삼표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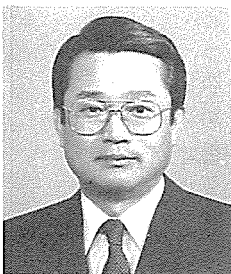


<김관식교수>

지난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 이종훈)은 4명의 교수를 승진발령하였다. 이번에 승진된 교수는 김관식(치과약리학교실), 홍삼표(구강병리학교실) 부교수를 교수로, 민병식(구강생화학교실) 조교수를 부교수로, 표광식(보존과)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승진하였다.

PFA 한국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최부병 교수



< 신임회장 최부병 >

지난달 30일 롯데호텔에서 PFA(뵈에르 포샤르 아카데미) 한국회의 제 15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신임회장에 경희치대 최부병 교수가 선출되었다.

이날 총회에는 일본 PFA 회원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제 4 회 학술상에는 경희치대 이상철 교수가 수상하였으며, 차기회장으로 김일경씨를 선출하였고, 감사로는 홍병덕, 조영선씨를 선임하였다.

• 한국 제이·피(주)

-치과용 VPS 인상재 공장 준공

한국제이·피 주식회사(대표이사 한영수)는 5월 4일 진천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 한국제이피(주)의 기술제휴선인 미국 제너릭 팬트론사의 부사장인 빈센트 파라디소를 비롯한 관계 내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 되었다.

<공장 전경>

이로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치과용 VPS(Vinyl Poly Siloxane) 인상재를 생산하게 되었다.

한영수 대표이사는 이날 인사를 통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던 VPS 인상재를 생산하게 되어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산학 협동을 통하여 국내 치의계 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피력하였다.

한국제이피(주)는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에 대지 1,225평, 건물 240평 규모의 공장에 최신 설비를 갖추고 연간 136톤의 VPS 인상재(저점도, 중점도 및 고점도)를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제이피(주)는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에 대지 1,225평, 건물 240평 규모의 공장에 최신 설비를 갖추고 연간 136톤의 VPS 인상재(저점도, 중점도 및 고점도)를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논문집

- 제 5집 제 1호 발간 -

단국대학교 치의학연구소에서는 단국치대는 논문집 제 5 집 제 1 호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논문집에서는 이재현 학장의 ‘실험적으로 유도된 백서 치주질환의 접합상피에서 상피성 성장인자 분포에 관한 면역조직 화학적 연구’를 비롯한 26편의 연구논문이 390여 페이지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